

케냐타 2기 정부의 출범 배경 및 향후 정책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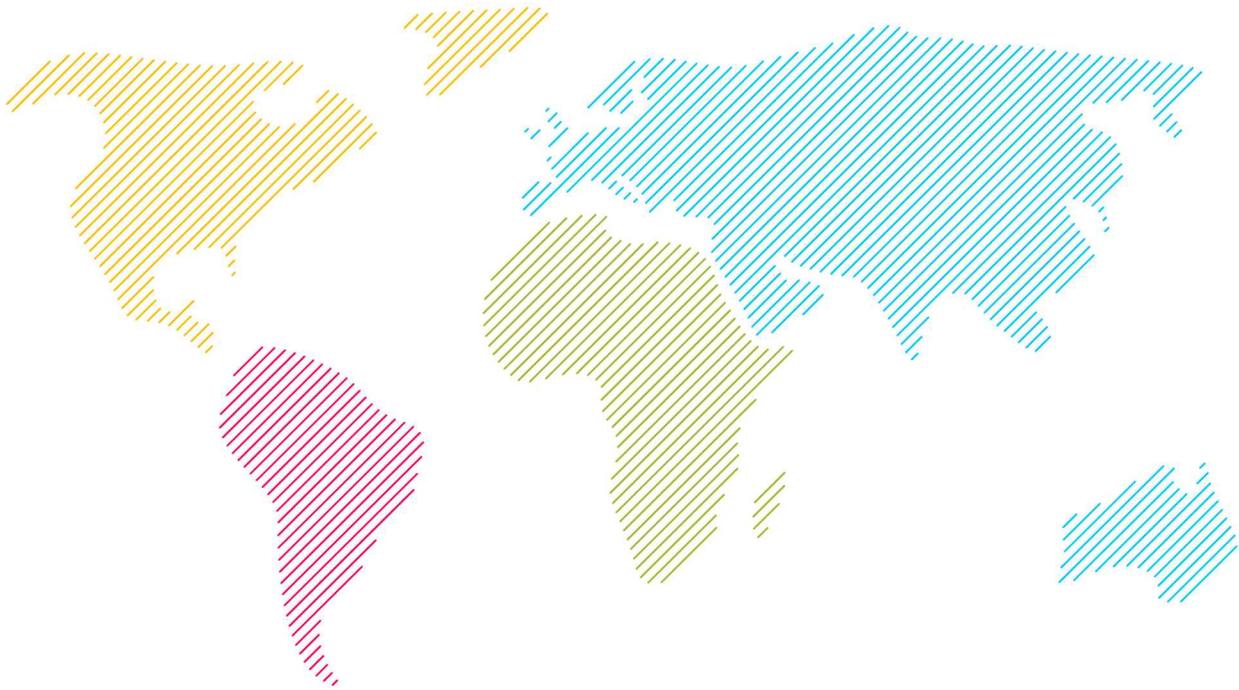
장종문 구미·유라시아본부 아중동팀 연구원(jmjang@kiep.go.kr, 044-414-1225)

김예진 구미·유라시아본부 아중동팀 연구원(kimyj@kiep.go.kr, 044-414-1116)

케냐타 2기 정부의 출범 배경 및 향후 정책 과제

요약

- ▶ 논란이 많았던 두 차례의 대선 끝에 우후루 케냐타가 11월 28일 케냐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하여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함.
 - 8월 8일에 치러진 기존 대선에서 우후루 케냐타 대통령이 54%의 득표로 당선되었으나 야권연합 후보인 라일라 오딩가가 대법원에 선거 무효 진정서를 제출하고 대법원이 이를 인정하면서 10월 26일에 재선거를 실시함.
 - 대법원은 선거관리위원회(IEBC)의 변칙 및 불법 행위를 주요 사유로 언급하며 이례적으로 선거 무효 판결을 내림.
 - 10월 26일 재선거에서 우후루 케냐타 대통령이 98%를 득표하여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으나 실질적인 투표율은 38.8%에 머물렀고 부족 간 지지율 격차가 커 정당성이 떨어짐.
- ▶ 케냐 경제는 정치적 불안에도 불구하고 5%대의 견고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음.
 - 케냐타 1기 정부의 대형 철도사업과 같은 각종 인프라 개발 및 국내소비가 견고한 성장세의 동력으로 작용해왔음.
 - 다만 케냐 정부는 2017년부터 긴축재정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에 주력하고 있고, 부족한 강수량에 따른 물가폭등에 대응하기 위해 통화정책에도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음.
- ▶ 케냐타 정부는 이전 정부에서 발표한 '비전 2030'을 준용하여 국가의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구조개혁을 추진해왔으나 이에 대한 평가는 분야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
 - '비전 2030'의 중기계획이자 케냐타 정부의 정책비전이라 할 수 있는 2차 중기계획(Medium Term Plan)의 성과를 기준으로 평가할 경우 케냐타 정부의 전력 및 도로 인프라 부문은 상당한 개선이 이루어져왔음.
 - 또한 2013년 케냐타 정부가 제시한 공약의 달성률을 기준으로 거버넌스, 인프라 관련 공약 달성률은 높게 나타난 반면 초·중등 교육의 경우 달성률이 저조했고 케냐타 임기 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부패문제도 여전히 심각한 상황임.
- ▶ 케냐타 2기 정부는 중앙정부의 주도하에 대규모 인프라 개발을 지속하여 경제성장을 유지하고자 함.
 - 케냐타 정부는 케냐가 동아프리카 물류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도록 물류 인프라 개발에 초점을 맞춰 공약함.
 - 또한 청색경제, 디지털 산업, 제조업 육성을 통해 산업다각화를 이루고자 함.
 - 그 외에도 시장과의 연계 및 민간부문의 협력을 강조한 무상교육 확대, 청년 실업 해소, 대규모 주택 공급 등을 공약으로 내세움.
- ▶ 케냐의 정치적 불안과는 별개로 점진적인 경제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동안 추진되어 왔던 대형 인프라 개발, 개방적인 통상정책 등 기존의 정책방향이 큰 변화 없이 유지될 전망이다.
 - 케냐의 성장잠재력을 고려했을 때 인프라 개발 사업 참여, 동아프리카 소비시장으로서의 가치는 여전히 유효한 상황임.



차 례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경제 현황 및 케냐타 정부 1기의 정책 평가
 - 가. 경제 현황
 - 나. 정책 평가
3. 케냐 대선의 경과 및 결과
 - 가. 8월 8일 대선
 - 나. 10월 26일 재선거
4. 케냐타 정부의 주요 정책 공약
 - 가. 개요
 - 나. 경제 정책
 - 다. 정치·사회 정책
5. 전망 및 시사점
 - 가. 전망
 - 나. 시사점

참고문헌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케냐는 주변 국가에 비해 경제구조가 다각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제도가 선진화되어 있어 동아프리카 정치·경제의 중심축 역할을 하였으나 최근에는 주변 국가들이 부상하고 있어 그 위상이 흔들리고 있음.

- 케냐는 지난 10년간 5%대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며 동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경제 규모를 유지하였으나 최근에는 주변국들의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 케냐의 경제 규모가 동아프리카공동체(EAC: East African Community)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크나 동아프리카 전체를 보면 2017년에 에티오피아가 케냐의 경제 규모를 상회함.¹⁾
 - 농업이 GDP의 36%로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나 유통, 통신, 금융 등 서비스 분야의 성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제조업 육성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음.²⁾
- 케냐의 몸바사(Mombasa)항은 동아프리카 최대의 항구이자 르완다, 우간다, 부룬디, 남수단, 콩고민주공화국 등의 주변 내륙국가로 연결되는 물류 요충지임.
 - 몸바사항의 컨테이너 처리량은 현재 100만 TEU 이상으로 2021년에 제2컨테이너 터미널 구축이 완성되면 총 컨테이너 처리량이 150만 TEU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³⁾
 - 케냐는 몸바사에서 우간다와 접경지역인 말라바(Malaba)까지 이어지는 표준궤도철도(SGR: Standard Gauge Railway)를 건설하고 라무(Lamu)항에서 에티오피아와 남수단으로 이어지는 LAPSSET(Lamu Port-Southern Sudan-Ethiopia Transport) 운송 회랑을 개발하여 탄자니아의 다르에스살람항구와 격차를 벌리고자 함.⁴⁾
- 케냐는 1969년 이후 단일 정당제를 유지하였으나 1991년에 다수 정당제로 변환하였고 2010년에는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키고자 헌법을 개정하여 지방정부로 권력을 이양하도록 하는 등 정치제도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음.
 - 헌법 개정을 통해 8개의 주(province)로 이루어져 있던 지방정부가 47개의 자치주(county)로 나누어졌으며 대선과 같은 시기에 총선도 실시하도록 하여 주지사, 주의원, 상원의원, 하원의원 및 지역 여성 대표도 직접투표를 통해 선출하도록 함.
- 탄자니아는 존 마구풀리(John Magufuli) 대통령이 2015년에 취임한 이후 지역 통합보다는 자국 산업 보호에 방점을 두고 있어 EAC의 경제 통합을 주도하고 있는 케냐와 대립관계로 발전하고 있음.
 - 케냐는 EAC 회원 국민이 케냐에 출입 시 신분증만 제시하면 출입할 수 있도록 하여 자유로운 이동과 시장 통합을 도모하고 있으나 탄자니아는 오히려 비관세장벽을 통해 국경을 강화하는 추세임.
 - EAC는 2016년 10월까지 유럽연합과 경제동반자협정(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을 체결하기로 하였으나 탄자니아가 결정을 유예하면서 현재 보류 상태임.
 - 케냐의 경우 EAC 회원국 중 유일하게 최빈국이 아닌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EBA: Everything But Arms) 특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EPA를 체결하지 못할 경우 모든 수출품에 10% 관세가 적용될 예정임.⁵⁾

1) 동아프리카공동체(EAC)는 남수단, 르완다, 부룬디, 우간다, 케냐, 탄자니아로 이루어져 있음. 1967년에 설립된 EAC는 케냐와 탄자니아가 각각 시장주의와 사회주의 노선을 택하면서 회원국 간에 경제정책 및 정치체계에 대한 견해차가 발생하여 1977년에 해체되었으나 2001년에 재출범하여 공동시장을 이루었으며 최종적으로 통화동맹을 추구하고 있음.

2) World Bank Database(검색일: 2018. 1. 4).

3) BMI(2017a), p. 25. 경쟁항구인 탄자니아의 다르에스살람항의 연간 컨테이너 처리량은 20만 TEU수준임(BMI 2017b, p. 31).

4) 말라바는 케냐 최서단에 있는 도시로 우간다와 인접해있으며 LAPSSET 개발계획은 예산 260억 달러가 요구되는 사업으로 2030년 완공 예정임.

5) 2001년에 시행된 EBA 정책은 EU에 수출할 시 무기를 제외한 모든 제품의 관세를 면제함. 34개의 아프리카 최빈국들이 대상국에 해당되며 만료기한은 없음.

표 1. 동아프리카 국가별 경제 상황(2016년)

국가	경제지표			재정지표		대외거래지표			인구 (백만 명)	
	명목GDP (억 USD)	명목1인당 GDP(USD)	경제성장률 (%)	재정수지 (GDP 대비)	정부부채 (GDP 대비)	무역수지 (억 USD)	경상수지 (GDP 대비)	외환보유고 (억 USD)		
E A C 연 연 국	케냐	705.3	1,455	5.8	-7.8 ^e	52.6	-78.9	-5.2	76.0	48.4
	탄자니아	473.4	879	7.0	-3.5 ^e	37.0 ^e	-27.7	-4.2	38.7	55.6
	우간다	240.8	580	4.7	-4.8 ^e	38.1 ^e	-14.0	-4.9	3.1	41.4
	르완다	83.8	703	5.9	-3.2 ^e	37.6	-13.0	-14.5	1.0	11.9
	부룬디	30.1	286	-0.6	-6.7 ^e	52.7	-4.2	-11.8	0.9	10.5
	남수단	77.0 ^e	534 ^e	0.3 ^e	-21.8 ^e	-	-26.6	2.17 ^e	0.7	12.2
에티오피아	723.7	707	7.6	-2.4 ^e	57.9	-118.8	-11.4	30.2	102.4	

주: 외환보유고는 금을 제외한 수치이며 e는 추정치(estimate)를 의미함.

자료: World Bank Database(검색일: 2017. 12. 26); African Economic Outlook Public Finances and Monetary Indicators(검색일: 2017. 12. 27); Oxford Economics Global Data(검색일: 2017. 12. 27).

■ 과거에는 부족간의 정치·경제적 이해관계가 대통령 선거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선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하고 부족 정체성이 상대적으로 약한 젊은 인구가 늘어나면서 효과적인 정책 수립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주요 대선주자였던 우후루 케냐타(Uhuru Kenyatta)와 라일라 오딩가(Raila Odinga)는 각각 키쿠유(Kikuyu)와 루오(Luo) 부족 출신으로 두 가문은 독립 이후 지속적으로 정치적 대립각을 세우고 있음.
 - 우후루 케냐타의 아버지인 조모 케냐타(Jomo Kenyatta)와 라일라 오딩가의 아버지인 자라몽기 오딩가(Jaramongi Odinga)는 케냐의 초기 대통령 및 부통령으로 1966년에 정치적으로 갈라섰으며 정치적 대립관계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음.⁶⁾
 - 케냐타의 출신 부족인 키쿠유족은 케냐 역사상 총 4번의 대선에서 3번 당선된 반면 오딩가의 출신 부족인 루오족은 당선된 바가 없음.
- 2007년에는 1,0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부족 간 분쟁이 선거 때마다 발생하나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부족 정체성이 약화되고 있음.
 - 설문조사기관인 Ipsos가 2017년 8월에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후보자를 지지하는 주요 사유로 출신 부족을 선택한 응답자는 1%인 반면 경제개발정책을 선택한 비율은 49%에 달함.⁷⁾

■ 이에 본 자료에서는 케냐의 대선이 대내외적 정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한국기업 진출 및 개발협력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케냐의 대선 과정 및 케냐타 대통령의 주요 정책 제안을 살펴본 후 케냐가 현재 대면하고 있는 과제와 향후 경제 전망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함.

6) 1963년에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면서 키쿠유 출신인 조모 케냐타는 KAMATUSA(Kalenjin, Maasai, Turkana 및 Samburu 부족간의 연합)당을 견제하기 위해 루오 출신인 오딩가와 연합하여 KANU(Kenya African National Union)당을 설립함. 그러나 1966년에 케냐타와 오딩가가 갈라지면서 오딩가는 KPU(Kenya People's Union)당을 설립하였고 1969년에 케냐타가 KPU당의 활동을 금지하면서 케냐는 사실상 단일 정당 체제로 돌입함[Elkins, 2008. 1. 6(검색일: 2017. 12. 13)]; Nyambura, 2017. 10. 26(검색일: 2017. 12. 13)].

7) Ipsos(2017b), p. 47.

2. 경제 현황 및 케냐타 정부 1기의 정책 평가

가. 경제 현황

■ [경제성장률] 케냐는 2017년 나타난 대선 관련 정치적 불안에도 불구하고 5%대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음.

- 케냐의 GDP는 2017년 기준 807억 달러로 동아프리카공동체(EAC) 국가 중에 가장 큰 규모를 나타내고 있으며 SGR사업 등 각종 인프라 개발 계획이 진행되고 있고 국내소비가 견고하게 유지되면서 경제성장을 이끌고 있음.
- 케냐타 1기 정부(2013~17년)는 나이로비와 몸바사를 잇는 표준궤도철도(SGR: Standard Gauge Railway) 1단계 완공, 몸바사항 제2화물 터미널 건설, 주요 공항 확장, 에너지 그리드 확대 등 하드 인프라 위주의 경제개발을 추진해왔으며 앞으로도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고 물류 이동의 효율화를 증진하기 위해 SGR 2단계 추진, 라무(Lamu) 항구 개발 및 주변 교통 인프라 구축, 몸바사-나이로비 고속도로 건설, 도심 가로등 설치, 투르카나(Turkana) 풍력 발전소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임.⁸⁾
- 케냐에 매장된 석유자원의 경우 2022년 이후에나 본격적으로 생산될 것으로 예상되나 석유 관련 인프라 개발에 대한 투자가 지속되면서 경제성장에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경제성장의 장애요인으로 중국의 경기둔화, 유가상승 등의 대외요인과 우기(3~5월)의 불규칙한 강수량으로 인한 농업생산저하, 2017년 시행된 민간부문 신용대출 제한조치들과 같은 대내요인이 존재하며 정치적 불안, 소득불평등 문제도 성장의 장애요인으로 평가되고 있음.
- 특히 소득불평등 문제는 선거과정에서 야당이 제기한 주요 쟁점이었는데, 실제로 케냐의 1인당 GDP는 2009년 920달러에서 2015년 1,335달러로 증가하였으나 국가 빈곤선 아래에 속한 인구는 지속적으로 46%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⁹⁾

표 2. 케냐의 거시경제 현황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실질 GDP 성장률(%)	4.6	5.9	5.4	5.7	5.8	5.5
농업성장률(%)	3.1	5.4	4.3	5.5	4.0	3.2
공업성장률(%)	4.2	5.3	6.6	6.1	6.5	9.0
서비스성장률(%)	4.7	5.4	5.8	6.4	5.8	6.1
금리(%)	19.6	17.3	16.5	16.2	16.6	14.3
소비자 물가(%)	3.2	7.2	6.0	8.0	6.4	8.5
경상수지(US\$ m)	-42,55	-4,872	-6,340	-4,308	-3,700	-3,688
외환보유고(US\$ m)	5,712	6,599	7,911	7,548	7,601	7,592

자료: EIU Country Report(검색일: 2018. 1. 4).

8) 나이로비와 몸바사를 잇는 표준궤도철도(SGR) 1단계 완공은 케냐타 정부의 핵심 업적으로 19세기 영국 식민지 당시 건설된 우간다 철도(Uganda Railway)를 대체하는 대규모 철도 사업임. 총비용은 약 36억 달러로 중국 수출입은행에서 약 32억 달러를 융자받아 건설하였음. SGR을 통해 몸바사-나이로비 간 이동 시간이 기존 12시간에서 4시간 반으로 단축되면서 매년 2,200만 톤의 화물을 추가적으로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약 3만 5,000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달성함. 2단계 사업인 나이로비-나이바샤 구간은 2019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음(Kenya Institute for Public Policy Research and Analysis 2017, 검색일: 2017. 12. 16).

9) World Bank Database(검색일: 2017. 1. 3); UNDP(2014), p. 180; UNDP(2016), p. 218.

■ [재정정책] 케냐타 1기 정부는 출범 후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해왔으나 재정적자 부담이 심화되면서 2017년부터 긴축재정 기조로 선회하고 있음.

- 케냐의 2017년 정부부채 규모는 케냐타가 집권한 2013년에 비하여 약 2배 증가하였으며 재정적자 규모는 GDP 대비 9% 수준임.¹⁰⁾
 - 케냐 재무부는 2017년 현행 긴축 재정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재정적자 규모를 2020년까지 GDP 대비 약 5% 수준까지 낮추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
 - 또한 케냐타 정부는 선거과정에서 재정지출 축소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부펀드를 도입하고, 공공부문의 개혁을 통해 재정수입 확대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피력해왔음.
- 이와 같은 정부의 노력이 지속된다면, 재정적자 문제는 점진적인 개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나 공공부문의 부채는 2017~18년도 GDP 대비 56.8%에서 2021~22년 62.2% 상승할 전망으로 장기적으로 거시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임금조정 등 구조개혁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

■ [통화정책] 케냐 정부는 통화정책과 관련하여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왔으며 식료품 물가의 높은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10%의 기준금리를 유지해왔음.

- 케냐 중앙은행의 물가 목표인 7.5% 이하로 물가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준금리는 현행 10% 수준을 당분간 유지할 전망이고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2018년 하반기에도 금리인하 여력은 높지 않은 상황임.
- 케냐 은행권의 구조적인 문제로 기준금리와 비교했을 때 일반 상업은행의 금리가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 [물가] 케냐의 물가는 최근 10년간 관리 가능한 수준인 3~8%대를 유지해왔으나 식료품 물가의 경우 높은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음.

- 케냐는 우기인 3월에서 5월에 주요 농산물들이 수확되나 최근 몇 년간 극심한 가뭄으로 우기 때 비가 부족한 현상이 반복되어 농업생산량이 감소하였고 2017년에는 식료품 물가가 20%를 넘는 수준(2017년 5월 기준, 전년대비)으로 폭등한 바 있음.
 - 구체적으로 2017년 옥수수가루의 가격은 31% 상승하고 설탕가격도 21% 넘게 상승하였는데 이는 2016년 4/4분기 강수량이 매우 저조한 상황에서 2017년 우기가 늦게 시작된 것이 원인으로 평가되고 있음.
 - 다만 2017년 식료품 물가폭등 사태는 정부가 식료품 가격을 동결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진정되었음.

■ [환율] 케냐의 환율은 정치적 불안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상황임.

- 케냐 실링은 2017년 10월 기준 달러당 103.39실링으로 7월 대선 전인 103.88실링보다 강세를 유지한 바 있음.
- 케냐의 실링은 그동안 여타 신흥국 대비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해왔으며 수입액의 5개월을 초과하는 75억 달러 수준의 외환보유고와 유사시 차용 가능한 IMF 기금 15억 달러도 환율흐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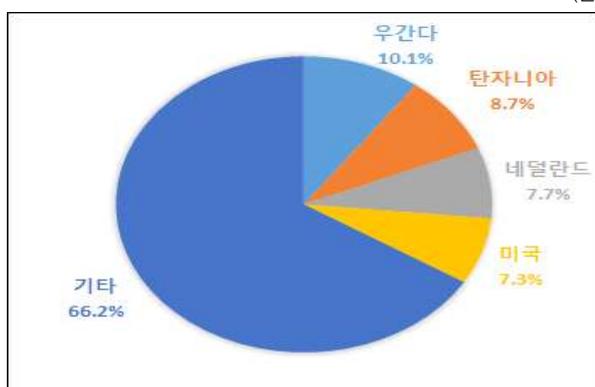
10) Central Bank of Kenya(검색일: 2017. 12. 16); Njini(2017. 7. 18, 검색일: 2017. 12. 16).

■ [대외거래] 케냐의 경상수지 적자문제는 2014년 이후 꾸준히 개선되고 있고, EU와의 EPA와 같은 무역협정에도 개방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 케냐의 연간 경상수지 적자액은 2014년 63억 달러를 나타낸 이후 현재 36억 달러 수준(2017년 기준)으로 꾸준히 감소해왔음.
 - 이는 GDP 대비 5.9% 수준으로 2018년에도 5.7%로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의 수출입기조를 고려했을 때 2022년까지 약 3.4% 수준까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
- 경상수지 적자폭 감소는 수입증가를 상회하는 수출실적에 기인하며 2018년에도 강수량이 정상수준으로 회복된다는 가정하에 식료품 수입감소로 인한 경상수지 개선이 기대됨.
 - 케냐의 주요 수출 품목은 차, 원예와 광물자원 등으로 상기 품목들의 수출증가가 꾸준히 지속되어왔고, 그동안 관심을 모았던 석유자원의 본격적인 생산은 2022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다만 수입액 역시 소비재에 대한 수요증가, 인프라 개발 관련 장비구매증가 등의 이유로 증가하는 추세라 향후 유가 등 대외요인에 따라 경상수지 적자 규모가 결정될 전망이다.
- 케냐는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해소를 위한 무역협정에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향후 새로운 EAC-EU 경제동반자협정(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이 여타 EAC 국가들의 협조로 체결된다면 상당한 수혜가 기대됨.¹¹⁾
 - 케냐는 최빈국이 아니므로 EU가 최빈국에게 제공하는 EBA(Everything But Arms)의 수출품 관세 면제, 수출입 할당량 면제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 상기 이유로 케냐 정부는 대유럽 주요 수출품인 원예상품 등에 적용되는 10% 관세를 면제받고자 새로운 EAC-EU EPA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고 이미 비준절차를 완료했으나 탄자니아 등 최빈국 혜택을 받고 있는 여타 EAC 국가와의 입장 차이로 협정 체결이 지연되고 있음.¹²⁾
 - 케냐의 경우 수입에서는 EAC역외 비중이 높지만 수출에서는 EAC 역내 비중이 상당한 수준이어서 EPA와 같은 역외무역협정 뿐 아니라 EAC 역내 통합과 외교관계에도 주의를 기울여야하는 상황임.

그림 1. 케냐의 주요 수출 대상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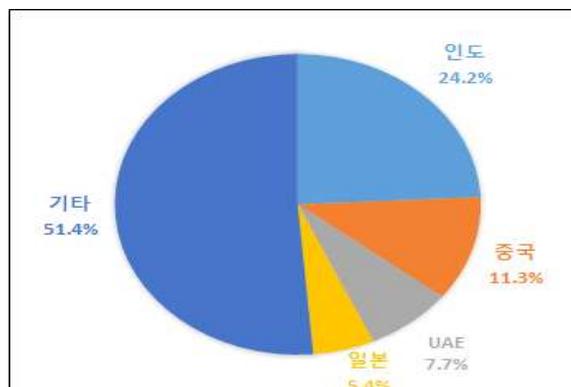
(단위: %)



자료: EIU Country Report(검색일: 2018. 1. 4).

그림 2. 케냐의 주요 수입 대상국

(단위: %)



11) EPA를 체결할 경우 EAC에서 수출하는 모든 제품이 무관세, 무쿼터 혜택을 받지만 동시에 EU에서 수입하는 제품에 대해서도 점차적으로 관세를 인하해야 함.

12) 탄자니아 내에서 EPA를 찬성하는 집단은 EPA를 거부할 경우 EU로부터 받는 원조가 감소할 수 있고 EBA를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최빈국에서 벗어 나고자 하는 노력이 제한될 것을 우려함.

나. 정책 평가

■ [정책비전] 케냐타 정부는 2007년 무아이 키바키(Mwai Kibaki) 정부에서 발표된 케냐의 중장기 경제개발정책인 ‘비전 2030’을 준용하여 국가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구조개혁을 추진해왔음.

- ‘비전 2030’은 경제, 사회, 정치 분야의 미래비전을 담고 있으며 이 중 경제 분야에서 농업, 관광, 제조, 무역, IT, 금융 등 6대 주요 산업을 선정하여 각 산업별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담고 있음.¹³⁾
 - 동 비전은 연평균 10% 이상의 경제성장을 통해 케냐 국민들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개선하고 중소득국 및 신흥 산업국가로의 발전을 이룬다는 케냐 정부의 정책방향이 잘 드러나 있음.
- 케냐 정부는 ‘비전 2030’의 실질적인 성과를 위해 5년 단위의 1, 2차 중기계획(Medium Term Plan)을 수립함.
 - 이 중 현 케냐타 정부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계획은 2차 중기계획으로 동 계획에서는 2013년에서 2017년까지의 전략목표를 제시한 바 있음.
 - 2차 중기계획에서는 지방으로의 권력이양, 성장가속화, 빈곤감소, 경제구조 개혁, 고용창출을 통해 중소득국으로 도약한다는 전략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음.
- 2차 중기계획에서는 2017년까지 10.1%대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한다는 거시경제적 목표가 제시되어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산업별 세부 전략 및 구조조정 계획도 담겨 있음.
 - 2차 중기계획에 따르면 10.1%대의 경제성장률 달성을 위해서는 30%대의 투자율과 산업구조조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케냐타 정부는 2차 중기계획에서 제시한 산업별 구조조정 전략을 산업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삼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왔음.

표 3. 2차 중기계획(MTP)의 산업별 전략 목표

분야	전략 목표
농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료 가격 하락 - High Grand Falls 댐 건설 및 관개농지 확장 - 세계시장진출을 위한 케냐 축산물 유통망의 접근성 향상 - 농촌지도(Extension Service) 지원 - 농촌 지역의 비닐하우스 및 농가공 공장 설립 확대 -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농산물 및 축산물 수출 지원 및 고부가가치 농산물 생산 확대
공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특구(SEZs, Special Economic Zones), 중소기업 산업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수출 주도형 성장 촉진 - 원유, 가스, 석탄 및 기타 광물자원을 활용한 이익 극대화 및 투자유치를 위한 정책, 법률, 제도개선 및 광업 발전 지원 - 도로, 항구, 철도, 전력플랜트 등 인프라 건설 확대 - 동아프리카공동체(EAC, East African Community), 동남아프리카공동시장(COMESA, Common Market for Eastern and Southern Africa) 참여를 통한 수출 시장 확대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산업, ICT, BPO(Business Processing Outsourcing)의 지속성장, 역내 무역 및 운송 서비스의 확대 - 저축확대를 통한 금융 분야의 급속한 확장 - 현지 기업 및 글로벌 기업을 위한 금융 서비스센터 구축

자료: The Presidency and Ministry of Devolution and Planning(2013), pp. 10-11.

13)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enya(2007).

■ [정책평가 - 2차 중기계획(MTP)의 성과] 2008년에서 2012년까지의 5개년 중기비전을 담은 1차 MTP는 높은 성과 달성률을 나타냈으나 케냐타 정부 출범 이후의 목표를 담은 2013년에서 2017년까지의 2차 MTP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성과를 나타낼 것으로 보임.

- 케냐타 정부 출범 이전의 1차 MTP는 2007년 대선관련 정치적 갈등을 완화하고 국민통합을 통한 국력 회복을 목표로 계획되었으며 2% 이하로 낮아진 경제성장률 회복에도 주안점을 두고 있음.

표 4. 1차 중기계획(MTP)의 주요 성과

분야	주요 성과
초등교육	초등교육 입학률 MTP 시행 전 대비 40% 증가, 2008년 172만 명에서 2012년 240만 명으로 증가
중등교육	중등교육으로의 진학률 MTP 시행 전 64%에서 77%로 증가
대학교육	대학 진학률 MTP 시행 전 12만 명에서 24만 명으로 증가
도로	제1차 MTP의 목표인 1,500km 도로 구축을 초과하여 2,200km 상당의 도로 네트워크 구축
네트워크 구축	케냐와 전 세계를 연결하는 3개의 해저 광케이블 구축 및 5,500km의 지상 네트워크 구축
전력	총 전력량 MTP 시행 전 대비 22% 증가
헌법	케냐 신헌법 공포

자료: The Presidency and Ministry of Devolution and Planning(2013), p. 2.

- 1차 MTP는 교육, 에너지 및 교통 인프라 구축, 정치 분야에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총평할 수 있으나 여러 가지 과제를 남겼고 이는 2차 MPT에 반영되었음.
 - 경제적 측면에서 낮은 제조업 비중과 농업생산성 저하에 따른 산업구조적인 문제와 높은 청년실업률, 아프리카 평균 대비 낮은 저축률 등이 과제로 거론된 바 있음.
 - 사회적 목표와 관련하여 지역 간 격차와 높은 인구증가율, 기후변화, 사이버 범죄 증가 등의 문제가 도전과제로 제기된 바 있음.
- 2차 MTP는 1차 MTP가 남긴 과제들을 바탕으로 수립되었으며 현재 평가가 진행 중이나 적어도 거시경제적인 차원에서는 목표 달성에 실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표 5. 2차 MTP 경제성장률 목표치와 실제 성장률 비교

(단위: %)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실질 GDP 성장률	4.6(4.6)	6.1(5.9)	7.2(5.4)	8.7(5.7)	9.1(5.8)	10.1(5.5)
농업성장률	3.8(3.1)	5.1(5.4)	6.5(4.3)	6.8(5.5)	7.1(4.0)	7.2(3.2)
공업성장률	4.5(4.2)	6.0(5.3)	7.6(6.6)	8.6(6.1)	10.1(6.5)	10.2(9.0)
서비스성장률	4.8(4.7)	6.5(5.4)	7.3(5.8)	9.4(6.4)	10.0(5.8)	10.1(6.1)

주: () 안은 실제 성장률.

자료: The Presidency and Ministry of Devolution and Planning(2013), p. 10; EIU Country Report(검색일: 2018. 1. 4).

- 2차 MTP의 경제성장률 목표는 2014년 이후 7%에서 2017년 10%까지 성장하는 것으로 수립된 데 반해 실제 경제성장률은 2014년 이후 5%대에 정체된 것을 알 수 있음.

- 2차 MTP의 성장률 목표는 2014년 당시 GDP의 24% 수준인 총 투자율을 2017년 30%까지 늘리는 것을 전제로 수립되었으나 글로벌 경기침체와 중국의 경기둔화 등으로 인해 실제투자율은 IMF 2017년도 전망치를 기준으로 18% 미만으로 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바 있음.
- 2차 MTP에 대한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평가는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나 우선분야로 선정되었던 권력이양, 국가통합, 안보, 식량안보 등 정치·사회분야에 대한 평가도 부정적이어서 '비전 2030'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 [정책평가 - 2013년 공약달성률] 케냐타 정부에 대한 평가는 정당별·기관별로 다양한 관점이 존재하나 대체로 인프라, 에너지, 보건 분야에 대한 투자 측면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현지 연구기관인 EAI(East African Index)는 2017년 케냐타 1기 정부의 공약 달성률을 평가하여 발표한 바 있는데 이에 따르면 케냐타 1기 정부는 2013년 선거공약의 62%를 달성함.
- 동 조사는 케냐타 정부의 공약을 단일성·경제성·개방성의 3가지 범주로 나누고 각기 세부공약 달성률을 평가하였음.
- 이 중 개방성 관련 공약의 달성률이 가장 높은 89.84%로 나타났으며 그다음 경제성, 단일성 순으로 상대적으로 국민통합과 관련된 성과가 저조하게 평가되었음.
- 세부항목 기준 공약의 달성률은 거버넌스, 권력위임, 여성권익, 인프라 관련 공약들이 높게 나타난 반면 중등교육, 초등교육분야는 매우 저조하게 나타남.

표 6. 케냐타 정부의 분야별 공약 달성률

(단위: %)

분야	공약 달성률
개방성	89.8
경제성	79.0
단일성	78.4

자료: Nairobi Confidential(2017. 7. 7).

표 7. 케냐타 정부의 공약 달성률 상위 5개 분야(세부항목)

(단위: %)

순위	세부분야	공약 달성률
1	거버넌스	100
2	권력위임	89.7
3	여성권익	88.6
4	인프라	87.5
5	토지개혁	69.2

자료: Nairobi Confidential(2017. 7. 7).

- EAI 조사에서는 부각되지 않았으나 교육문제 이외의 부패문제도 케냐타 1기 정부의 한계로 평가되고 있음.
- 현 대통령인 우후루 케냐타는 케냐의 초대 대통령인 조모 케냐타(Jomo Kenyatta)의 아들로써 대규모 농장과 금융기관을 소유하고 있으며 케냐에서 가장 부유한 가문으로 손꼽힘.
- 또한 케냐타 대통령은 전임 무아이 키바키(Mwai Kibaki) 대통령과 같은 키쿠유족 출신으로 전임 정권에 대한 청산에 한계가 있어 케냐의 부패문제는 오랜 과제로 남아 있음.
- 실제로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2016년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에 따르면 케냐의 부패인식지수는 100점 만점에 26점으로 조사대상국 176개국 중 145위에 해당함.
- 케냐는 EAC 국가 중 가장 큰 경제규모를 자랑하지만 부패인식지수는 최근 가입한 남수단을 제외한 EAC 5개국 중 3~4위를 기록하는 수준이고 케냐타 정부기간에도 크게 개선되고 있지 않은 상황임.

그림 3. 케냐의 부패인식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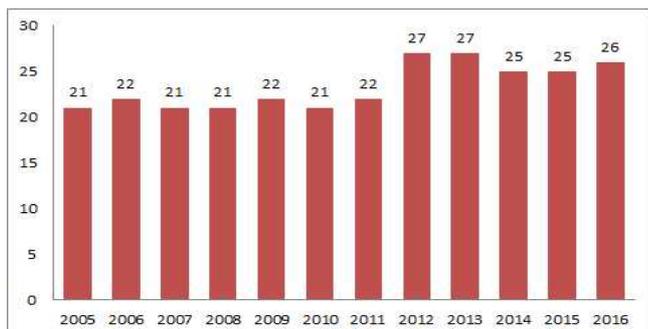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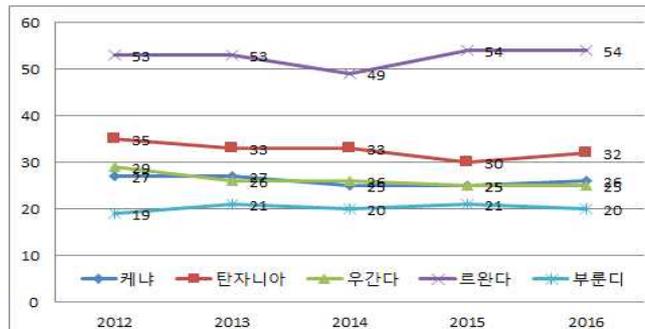


그림 4. EAC 국가간 부패인식지수 비교

(단위: %)



자료: Transparency International(2006-2017);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데이터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3. 케냐 대선 결과 및 결과

가. 8월 8일 대선

■ 큰 폭력사태 없이 치러진 2017년 8월 8일 대선에서 케냐타 대통령이 54%의 득표로 당선되었으며 국제사회는 선거 과정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보냄.

- 8월 8일 대선 투표율은 79%로 1,906만 명의 유권자 중 1,500만 명 이상의 시민들이 투표한 가운데 케냐타와 오딩가는 각각 822만 표(54.17%)와 682만 표(44.94%)를 받음.
- 카터 센터(Carter Center)의 단장으로 케냐의 대선을 참관한 존 케리(John Kerry) 前 미국 국무장관은 8월 8일 대선이 “자유롭고 공정하며 신뢰할 수 있는” 선거였다고 평가함.

■ 그러나 야권연합(NASA: National Super Alliance)의 후보인 오딩가는 선거 결과에 불복하며 대법원에 재선거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함.

- 오딩가 측은 전자선거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선거 결과 송출 과정의 투명성, 투표용지 및 결과지의 변칙, 투표 결과의 검증 전 투표 결과 발표 등에 문제를 제기하는 진정서를 제출함.
 - 케냐는 이번 선거에서 KIEMS(Kenya Integrated Election Management System) 전자선거시스템을 도입하여 유권자의 생체 인식 등록, 식별 및 투표 결과 전송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도록 하였음.
 - 각 투표소 및 선거구는 선거 종료 즉시 결과지를 작성하여 중앙집계소로 전송해야 하며 IEBC는 이를 검증한 후 발표하도록 선거법에 규정되어 있음.

■ 야권은 선거 이전부터 전자선거시스템에 대한 선거법 개정에 반대하는 등 선거의 투명성 및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였음.

- 2007년에 부정선거 의혹이 불거지면서 1,0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유혈사태가 발생한 결과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2013년 대선에서 전자선거시스템을 도입하였으나 지문인증시스템 및 집계 서버가 오작동하면서 부정선거 의혹이 끊이지 않았음.
- 케냐타 대통령은 2017년 1월에 과거와 같이 전자선거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 유권자 등록, 식별 및 투표 결과 전송을 수기(手記)로 하도록 하는 의무적인 보완 대책을 명시한 선거법 개정안에 서명한 바 있음.
- 이에 야권은 집권세력이 의도적인 오작동을 통해 사망했거나 존재하지 않는 거짓 유권자들을 만들어 선거를 조작할 수 있다며 크게 반발함.

■ 대법원은 IEBC가 대선을 준비하고 관리하면서 변칙과 불법 행위를 하여 선거법과 헌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판단하에 이례적으로 선거 무효 판결을 내림.

- 선거 결과를 무효화한 대법원의 판결은 아프리카에서 극히 드문 경우로 국제사회는 부패가 만연한 케냐 사회에서 대법원의 용기를 높이 평가함.
- 대법원은 IEBC가 전자적으로 수신된 결과와 물리적 결과지를 비교 검증하지 않았고 IEBC가 발표한 결과에 대한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만큼 IEBC의 서버가 해킹되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함.

표 8. 대법원의 주요 판결 내용

사안	판결 내용	부가 설명
투표 결과 검증	IEBC는 선거법 39항에 의거하여 각 투표소 및 선거구에서 전송하는 결과지의 정확성 및 진위 여부를 검증한 후 최종결과를 발표해야 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IEBC는 모든 결과지가 다 수신되기 전에 당선인을 발표함.	IEBC는 선거 결과 공표 당시 11,883개의 투표소에서 34A결과지를 전자적으로 받지 못했다고 공개적으로 시인함. 결과 발표 나흘 뒤인 8월 15일에도 5,015개의 투표소에서 받지 못했다고 시인한바 있는데 이는 약 350만 표에 달함. ¹⁴⁾
선거 관련 용지의 보안 기능 표시	IEBC는 선거에 사용된 모든 용지에 UV 프린팅, 투명무늬, 복사방지무늬, 바코드, 일련번호 등 여러 보안 기능과 선거관리위원의 확인을 표시했다고 함. 그러나 대법원에 제출한 결과지를 검토한 결과 표시된 보안양식이 용지별로 상이하거나 부재했음. 또한 어떤 용지는 IEBC의 공식 직인이 찍혀있지 않았거나 선거관리위원의 확인이 없었음.	대법원의 원본 제출 규정에도 불구하고 IEBC는 최종결과지인 34C를 포함하여 상당수를 복사본으로 제출하여 진위여부 파악이 더욱 어려웠음.
전자선거시스템의 사전점검	IEBC는 선거를 이틀 앞두고 11,000곳 이상의 투표소에서 인터넷 네트워크가 제한되어 전자적 전송이 어렵다고 발표함. 인터넷 네트워크의 제한으로 결과지를 전자적으로 전송하기 어려웠던 지역의 주변 도로 및 인터넷 네트워크 인프라는 양호함. 따라서 선거관리위원이 서너 시간 내에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곳으로 이동하여 전송할 수 있었기에 네트워크 실패를 전자적 전송의 실패 사유로 보지 않음.	선거법 44항 및 선거규정 21, 22, 23항에 따라 IEBC는 선거 60일 이전에 전자선거시스템을 검증하고 45일 이전에 네트워크 범위에 대해 공개적으로 발표하도록 되어 있음.
IEBC 서버 해킹	대법원은 IEBC의 서버 해킹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관계자에게 서버 접근 권한을 부여하고 IEBC의 협조를 요청함. 그러나 IEBC는 보안상의 이유로 거부함. 이에 대법원은 외부 수정이 불가능한 읽기 전용 액세스를 재차 요청하였으나 IEBC는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였기에 서버가 해킹당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IEBC의 ICT부서장인 크리스 음산도(Chris Msando)가 선거 9일 전 고문을 당한 후 사살된 채로 발견됨. 이에 야권에서는 해커들이 서버의 보안 사항을 파악하여 선거 결과를 변형시킬 수 있는 알고리즘을 삽입하기 위해 고문했다고 주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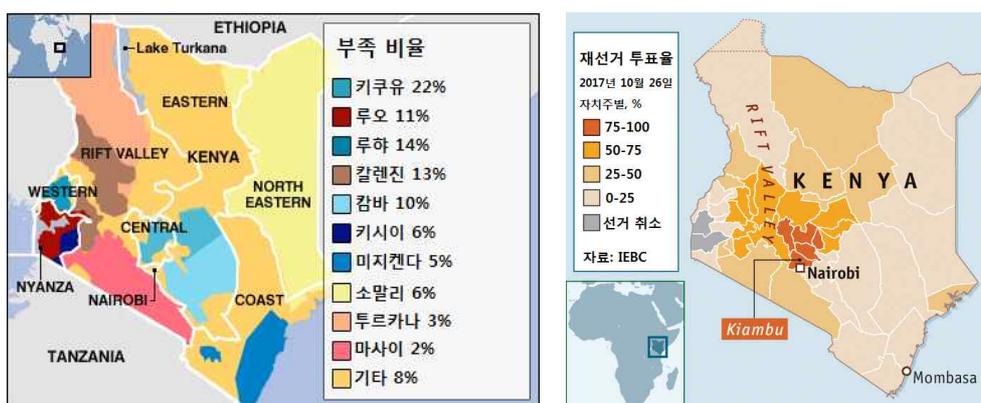
자료: Supreme Court of Kenya(2017a); Dahir and Kuo(2017. 8. 9)를 종합하여 저자 작성.

나. 10월 26일 재선거

■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재선거는 2017년 10월 26일에 치러졌으며 케냐타 대통령이 98%의 압도적인 지지율로 재당선에 성공하였으나 전반적으로 투표율이 낮았고 부족 간 지지 격차가 크게 나타남.

- 오당가는 재선거가 실시되더라도 IEBC의 개혁이 전제되지 않으면 공정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10월 10일에 재선거 불출마를 선언하였으며 지지자들 또한 재선거에 불참할 것을 독려했.
- UN 직원이자 IEBC의 선거관리위원인 로즐린 아콤베(Roselyn Akombe)는 IEBC의 독립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으며 재선거를 실시하더라도 공정하지 못할 것이라며 돌연 사퇴 후 안전상의 이유로 미국으로 도피함.¹⁵⁾
- IEBC의 의장인 와풀라 체부카티(Wafula Chebukati) 또한 자유롭고 공정한 재선거를 보장할 수 없음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음.¹⁶⁾
- 재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과 오당가의 불출마 선언으로 투표율은 38.8%에 그쳤는데, 총 290개의 선거구 가운데 113개의 선거구에서는 투표율이 20% 미만이었으며 유혈사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25개의 선거구에서는 투표가 취소됨.
- 케냐타 대통령과 루토 부통령의 출신 부족인 키쿠유와 칼렌진(Kalenjin)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투표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라일라 오당가의 출신 부족인 루오가 주로 거주하는 키수무(Kisumu), 미고리(Migori), 호마베이(Homa Bay) 및 시아야(Siaya)지역에서는 폭력사태가 악화되어 선거가 취소됨.¹⁷⁾

그림 5. 케냐의 부족별 주요 거주 지역 및 지역별 투표율 비교



자료: Stratfor(2017. 8. 4, 검색일: 2017. 12. 12); "Uhuru Kenyatta's Hollow Victory," p. 51.

14) 34A는 각 투표소에서 작성하는 결과양식으로 각 후보자별 득표수, 유권자 수, 총 유효 수, 총 무효 수, 주재 당원 등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음. 34B는 각 선거구에서 작성하는 결과양식으로 해당 선거구에 속한 각 투표소의 유권자 수, 후보자별 득표수, 총 유효 수, 총 무효 수, 주재 당원 등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음. 34C는 중앙집계소에서 최종적으로 작성하는 결과양식임. Supreme Court of Kenya(2017a), p. 114.

15) "Kenya election official Roselyn Akombe flees to US"(2017. 10. 18, 검색일: 2017. 12. 14).

16) KTN News Kenya(2017. 10. 18, 검색일: 2017. 12. 14).

17) 우후루 대통령이 속한 키쿠유 부족은 케냐에 거주하고 있는 44개의 부족 중 가장 큰 부족으로 전체 인구의 22% 정도임. 1963년에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면서 키쿠유 출신인 조모 케냐타(Jomo Kenyatta)가 초기 대통령에 당선되고 1992년까지 단일 정당 체제를 유지하면서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함. 케냐타가 이끈 KANU(Kenya African National Union)당은 KAMATUSA(Kalenjin, Maasai, Turkana 및 Samburu 부족 간의 연합)당을 견제하기 위해 루오족과 연합하여 만든 정당이나 1966년에 루오족과 갈라지면서 초기 대통령과 부통령을 배출한 키쿠유족과 루오족은 지금까지 정치적 적대관계를 유지하고 있음[Elkins(2008. 1. 6, 검색일: 2017. 12. 13); Nyambura(2017. 10. 26, 검색일: 2017. 12. 13)].

■ 재선거 이후에도 두 건의 진정서가 대법원에 접수되었으나 기각되어 케냐타 대통령은 2017년 11월 28일에 공식적으로 취임함.

- 전직 국회의원인 존 하룬 므와우(John Harun Mwau) 및 인권변호사인 존조 뮤에(Njonjo Mue)와 인권운동가 헬레프 할리파(Khelef Khalifa)는 재선거 이후 선거 절차에 이의를 신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함.
- 존 하룬 므와우가 제출한 진정서와 존조 뮤에 및 헬레프 할리파가 제출한 진정서는 후보 등록 절차의 생략에 대해 공통적으로 이의를 제기함.
- 뮤에 및 할리파는 폭동의 위협으로 4개 지역에서 재선거가 치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국민의 투표권이 행사되지 않았다는 점을 추가적으로 서술함.

표 9. 재선거 관련 진정서의 주요 내용 및 기각 사유

사안	진정서의 주요 내용	기각 사유
후보 등록	10월 26일에 치러진 선거는 8월 8일 선거의 연장선이 아닌 새로운 선거로 간주해야 함. 따라서 기존 후보자들의 후보 자격은 8월 8일부로 만료되었으며 10월 26일 선거를 위해 새로운 후보 등록 절차가 요구되었으나 이루어지지 않아 이번 선거는 무효임.	에쿠루 아우콧(Ekuru Aukot)의 후보직에 대한 진정서가 고등법원에서 인정됨에 따라 대법원은 10월 26일 재선거를 새로운 선거가 아닌 8월 8일 선거의 연장으로 간주함. 따라서 기존 후보자들의 후보 자격이 자동으로 연장된 것으로 판단함. ¹⁸⁾
투표용지에 명시된 후보자 명단	선거 규정 68조 3, 4항에 따라 공식적으로 후보 등록을 마친 후보의 성명만 투표용지에 기재할 수 있음. 그러나 개인 부도로 인해 후보 자격이 박탈된 지롱고(Shakhalaga Kwa Jirongo)와 후보직에서 사퇴한 오딩가의 성명이 투표용지에 기재되어 있음.	지롱고(Jirongo)는 개인 부도로 인해 대통령 후보 자격이 자동적으로 박탈되었으나 10월 16일에 형 집행정지를 요청하였고 나이로비 고등법원은 이를 승인하였기에 자격이 다시 부여됨. IEBC는 이러한 사실을 10월 24일에 공표한 후 투표용지에 성명을 기재하였기에 법에 위반되지 않음.
선거권 보장	헌법 38조 및 81조에 보장된 투표의 권리와 달리 의도적인 투표소 훼손 및 폭력의 위협 등으로 특정 선거구에서 선거가 취소됨에 따라 국민들의 투표할 권리가 제한됨.	폭력의 위협으로 인해 투표권 행사가 제한되었다는 사유로 선거 무효를 인정할 경우 앞으로 선거를 무효화하기 위해 의도적인 폭력행위가 행사될 수 있음. 따라서 폭력의 위협 속에서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선거를 진행한 것은 합당하다고 판단함.
선거관리기구의 독립성	헌법 81조에 명시된 바와 달리 IEBC는 독립적인 기구가 아니었으며 선거도 공정하게 치러지지 않음.	IEBC의 독립성은 헌법에 보장된 것으로 이들이 변칙과 불법을 행했다는 증거는 불충분함.

자료: Supreme Court of Kenya(2017b); Supreme Court of Kenya(2017e)를 종합하여 저자 작성.

■ NASA는 선거로 분열된 국가를 통합하자는 명목으로 각 당의 대표들로 구성된 임시정부를 제안하였으나 케냐타 대통령 측은 이를 거부하였으며 이에 오딩가는 2018년 1월 30일에 별도의 취임식을 강행함.

- 오딩가는 △선거 개혁 △경찰 개혁 △사법부의 독립성 보장 △지방 분권 강화 △행정부 개혁을 주장하며 별도의 정부를 수립하겠다고 함.
- 취임식에는 오딩가만 참석하였으며 부통령 후보였던 칼론조 무시오카(Kalonzo Musyoka)를 포함한 핵심 인사들이 취임식에 불참하면서 야권연합의 분열 여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
- 무시오카는 취임식 당일 오전 본인의 자택에서 암살시도가 발생하여 안전상의 이유로 이동이 불가하였다고 해명함.

18) 당초 IEBC는 케냐타와 오딩가 후보만이 재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기존 대선의 후보였던 에쿠루 아우콧(Ekuru Aukot)이 고등법원에 이의를 제기하고 고등법원이 이를 인정하면서 IEBC는 투표용지에 모든 후보자들의 성명을 기재함(Supreme Court of Kenya(2017e), pp. 4-8).

4. 케냐타 정부의 주요 정책 공약

가. 개요

■ 우후루 케냐타 대통령과 집권여당인 쥬빌리는 '비전 2030'에서 제시한 중진국 지위를 이루기 위해 중앙정부주도형 경제 성장에 방점을 뒀.

- 쥬빌리는 2016년에 11개의 정당이 연합하여 만든 새로운 정당으로 우후루 케냐타 대통령과 윌리엄 루토 부통령의 소속 정당임.
- 쥬빌리는 2017년 총선을 통해 290석의 하원의석 중 140석과 47석의 상원의석 중 25석을 차지하고 있음.
- 케냐타 대통령은 1기 정부 당시 높은 경제성장률의 기반이 되었던 대규모 인프라 개발 사업을 지속시켜 일자리 창출 및 경제성장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나 2013년 대선 당시 공약과는 달리 구체적인 경제성장 목표치는 제시하지 않았음.
- 반면 역사적으로 소외되고 상대적으로 빈곤한 지역이 주요 지지층인 라일라 오딩가는 지방정부로의 권력이양과 부의 분배 등 국가통합에 대한 정책 방향성을 제시했었음.

표 10. 후보자별 주요 공약 정리

주제	케냐타 (쥬빌리)	오딩가 (NASA)
경제 성장	- 물류 산업 개발과 관련된 대규모 하드 인프라 개발	- 소외된 지역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통 인프라 확충 및 소프트 인프라 개발
산업 다각화	- 청색경제, 디지털 산업, 제조업 육성 위주의 산업 다각화	- 관광, 섬유, 문화 산업 지원 - 비공식부문 육성 - 전통 산업인 농업개발 강조
재정	- 추가적인 예산 확보를 통한 정부 지출 확대	- 성장 위주의 정책 비판 - 부채 축소 강조
식량 안보	- 보조금 지급 - 농업 인프라 확충	- 식량안보 정보 수집기관 신설 - 지방정부와 공동으로 비축 식량 관리
청년 실업	- 정부 주도 사업에 청년들의 참여 촉진 - 청년 고용 지원을 위한 조세 지원 제도 확충	- 청년창업개발기금 설립을 통한 청년들의 창업 활동 격려 - 문화 산업으로의 진출 독려
교육	- 시장과 연계된 교육 제도 마련	- 보편적 교육 시스템 확충 - 교육의 질 향상
보건	- 공공의료보험제도 강화 - 의료 환경 개선	- 공공의료서비스 개선 ¹⁹⁾ - 의료 환경 개선
도시화 및 주택	- 전국적으로 5년간 50만 가구 공급 - 주택마련비용 지원 제도 개발	- 전국적으로 5년간 50만 가구 공급 - 농촌주택부(Department of Rural Housing) 신설 - 나이로비의 대중교통 확충
균형 발전	- 지방의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산업 인프라 마련 - 지방 공무원의 역량 강화 제도 마련	- 지방정부에 지정된 예산 증액 - 지방정부의 기능 강화
안보	- 소말리아평화유지군(AMISOM) 추가 파견	- 소말리아평화유지군(AMISOM) 철수

자료: Jubilee(2017); NASA(2017)를 종합하여 저자 작성.

나. 경제 정책

■ [경제 성장] 케냐타 정부는 교통 인프라를 중심으로 대규모 인프라 개발을 지속하여 동아프리카 물류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경제성장을 견인할 계획임.

- 케냐타 대통령은 지난 4년간 SGR 1단계 완공, 몸바사항 제2화물 터미널 건설, 주요 공항 확장, 에너지 그리드 확대 등으로 인한 경제개발 성과를 강조함.²⁰⁾
- 북방, 중앙, 및 LAPPSET 화물교통망 간의 교통 인프라 연계, 몸바사-나이로비 간 왕복 6차선 고속도로 건설, SGR 2단계 건설, 라무-미리티니 간 철도 건설 등의 교통 인프라 개발을 통해 물류 이동을 보다 용이하게 하겠다고 발표함.
- 또한 케냐 북서부에 아프리카 최대 규모의 투르카나(Turkana) 풍력 발전소 및 송전선을 완공하여 경제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에너지 공급원을 확보하겠다고 함.²¹⁾

■ [산업다각화] 케냐타 정부는 중앙정부 주도의 청색경제(blue economy), 디지털 산업, 제조업 육성을 통해 산업다각화를 이루고자 함.

- 그동안 소외되었던 청색경제를 개발하기 위해 국유기업인 케냐 해운(Kenya National Shipping Line)의 구조조정 및 경영 개선, 해상 운송경로 개발, 해양대학교 설립, 해양 관광 산업 육성 등 다양한 정책을 제시함.
 - 해상 운송 개발로 최소 5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시보니, 몸바사, 킬리피 및 라무 지역에 어항(漁港)을 개발하여 1만 2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공약함.
- 동아프리카에서 독보적으로 앞서나가고 있는 디지털 산업을 강화하고 '실리콘사바나'를 조성하기 위해 기술 창업 에코시스템(Enterprise Kenya)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함.²²⁾
 - 특히 콘자과학기술도시(Konza Techno-city) 개발을 지원하여 전자상거래의 허브로 부상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함.²³⁾
- 제조업 육성 정책의 일환으로 'Buy Kenya-Build Kenya' 정책을 추진하여 철강, 의류, 농가공식품 등을 국내에서 생산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기반 시설 구축, 법적·제도적 규제 도입 및 조세 혜택과 같은 장려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함.²⁴⁾

19) 현재는 정부에서 일시불로 국립병원에 지원금을 전달하지만 지원금을 선지불하지 않고 병원이 환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뒤 정부에 청구하는 식으로 지원형태를 변경하겠다고 공약함.

20) 나이로비와 몸바사를 잇는 표준궤도철도(SGR) 1단계 완공은 케냐타 정부의 핵심 업적으로 19세기 영국 식민지 당시 건설된 우간다 철도(Uganda Railway)를 대체하는 대규모 철도 사업임. 총비용은 약 36억 달러로 중국 수출입은행에서 약 32억 달러를 용자 받아 건설하였음. SGR을 통해 몸바사-나이로비 간 이동 시간이 기존 12시간에서 4시간 반으로 단축되면서 매년 2,200만 톤의 화물을 추가적으로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약 3만 5,000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달성함. 2단계 사업인 나이로비-나이바샤 구간은 2019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음(Kenya Institute for Public Policy Research and Analysis, 2017(검색일: 2017. 12. 16).

21) 투르카나 풍력 발전소는 850KW 발전용량의 터빈 365개를 설치하여 전국 설비 용량의 약 15%에 해당하는 310MW의 전력 공급을 목표로 함. 2017년부터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정부가 송전선 건설 구축 기한을 맞추지 못하면서 발전소 개발 업체인 Isolux Ingeneria SA와 위약금에 대해 협상하고 있음.

22) 'Enterprise Kenya'는 2015년도에 케냐타 정부가 정보통신기술 관련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개시한 사업으로 창업 자금 조성을 위한 주식형펀드 개발,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연구센터 설립 등을 포괄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진척된 사항은 없음.

23) 나이로비에서 약 60km 거리에 위치한 콘자과학기술도시는 2013년도에 개발을 시작하였으며 2020년까지 1단계 개발을 완성하는 것이 목표로 현재 상수도, 도로, 전기 등과 같은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음.

24) 케냐타 대통령은 2015년에 공공조달 및 자산 매각법(Public Procurement and Asset Disposal Act)을 제정하여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 및 서비스에 특혜를 제공했으며 정부 예산 중 40%는 국내 생산 제품 및 서비스 구매에 사용하도록 구별함.

- 정부 주도 사업에는 국산부품 사용요건을 40%로 적용하고 해당 사업의 30%는 중소기업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격려하여 현지 생산 능력을 육성하겠다고 함.
- 또한 케냐 수출입은행 및 산업개발은행을 설립하여 장기신용 대출을 지원할 계획임.

■ [재정] 경제 성장을 강조하는 케냐타 정부는 정부 지출을 축소하기보다는 정부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하여 첫 임기에 개시한 여러 개발 사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냄.

- 채굴산업 관련 기업의 수입에서 최소 5%를 저축하도록 규정하는 국부펀드를 설립하여 현재 GDP대비 18.3% 수준인 국가예금액을 2022년까지 25.3%로 늘리겠다고 함.
- 통합조달청을 신설하여 정부의 행정기능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정부 조달 기능을 효율화하여 향후 5년간 99억 달러의 국가예금을 마련하겠다고 함.

다. 정치·사회 정책

■ [식량 안보] 가뭄의 영향으로 큰 폭의 식료품 가격 변동이 반복되고 있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농업 인프라 및 기술 개발을 주요 정책으로 제시함.²⁵⁾²⁶⁾

- 케냐타는 2017년 상반기에 5,800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옥수수가루의 가격을 동결하고 피해 가구에 매달 30 달러를 지원하는 등 일시적인 보조금 확대 지급을 통해 식품 가격을 안정시키고자 하였음.
- 장기적으로는 57개의 댐을 건설하고 관개 농업 기술, 수확 후 관리 기술 및 비료 보조를 통해 농업 생산성을 확대하겠다는 정책을 내세움.
- 또한 식량 매입 프로그램(Food Acquisition Programme)을 신설하여 소작농들의 농업협동조합 구성을 격려하고 정부매입량의 50%를 소작농으로부터 구입하겠다는 공약을 세움.

■ [청년 실업] 22.2%에 달하는 높은 청년(15~24세) 실업률을 해소하기 위해 청년들의 역량 개발 기회를 확대하고 금융 지원을 보완하겠다고 공약함.²⁷⁾

- 케냐타 정부는 청년 실업률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 교육시스템(Ajira Platform)을 마련하여 정부 주도의 개발 사업에 고용하도록 한 바 있음.²⁸⁾

25) 1980년 이후에는 3~4년 주기로 가뭄이 발생하고 있는데 1980년에는 4만 명의 피해자들이 발생한 반면 2000년에는 440만 명의 피해자들이 발생하였고 6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 발생하였던 2011년에는 100만 명 이상의 피해자들이 발생함[Mateche, 2011. 1. 18, (검색일: 2017. 12. 17)].

26) 설문조사기관인 Ipsos가 7월에 발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현 정부의 정책 중 개선이 필요한 분야로 물가 상승을 선택한 응답자의 비율이 53%로 가장 높게 나타남[Ipsos(2017a), p. 10].

27) Ipsos의 7월 설문조사에 의하면 물가, 가뭄, 지도자 자질(leadership) 다음으로 청년 실업률에서 정책 개선이 가장 많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Ipsos(2017a), p. 10].

28) Ajira Digital Programme은 록펠러재단의 후원을 받아 젊은이들에게 온라인 작업과 관련된 훈련을 제공하며 7개의 온라인 기업과 연계하여 고용 기회를 마련하는 프로그램으로 정보통신기술부, 공공서비스부, 교육부 등이 참여하고 있는 케냐 정부 주도 사업임.

- 국가 개발 예산의 30%는 청년층을 위해 배정하는 등 공공부문에서의 청년 고용 장려 정책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조세 지원을 통해 민간 부문에서의 청년 고용을 격려함.
- 또한 케냐를 아프리카의 문화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영화, 패션, 광고, 디자인 등 문화·예술 분야를 창조경제 산업으로 지정하여 청년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독려함.

■ [교육] 무상교육 확대뿐만 아니라 시장의 수요와 연계된 교육과정을 마련하겠다고 함.

- 현재 무상으로 제공되는 국공립 초등교육을 중등교육까지 확대하겠다고 함.
- 고등교육의 경우 대학생 및 고등기술교육학교(TVET) 재학생들에게 제공되는 대출 자금을 두 배로 늘리고 산학협력 제도와 같이 산업현장의 수요에 맞춘 교육과정을 수립하는 등 시장의 수요에 맞춘 교육 정책을 강조함.
- 콘자과과학기술도시에 케냐과학기술원(Keny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을 설립하여 과학기술에 특화된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함.

■ [보건] 공중의료보험제도(NHIF: National Hospital Insurance Fund)의 지원대상자를 확대하고 의료시설을 개선하겠다고 공약함.²⁹⁾

- 주빌리는 NHIF를 통해 70세 이상 인구, 장애아 가족 및 임산부에게 의료 지원을 확대하고 2022년까지 NHIF 가입자 수를 1,300만 명까지 늘릴 계획임.³⁰⁾
- 이동형 의료서비스를 포함한 지역 차원의 보건 시설을 확대하여 거주지로부터 8km 이내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함.
- 병원에 인터넷 네트워크를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세계의 의료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함.

■ [도시화 및 주택]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도시화에 맞춰 주택 공급량을 늘리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정책을 제안함.

- 민간 부문과 협력하여 5년 간 50만 가구를 제공할겠다는 공약을 내세움.
- 정부 주도의 주택 개발 사업에 민간 주택 개발업체, 민간 금융업체 등과 같은 민간 부문의 참여를 허용하여 건축 비용을 낮추고 건설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목표임.
- 특히 공공주택기금(National Social Housing Development Fund)을 마련하여 주택 건설비용과 제반 인프라 개발을 지원하겠다고 함.
- 건물안전진단 제도 강화, 슬럼 지역 개선 등 기존 주거지 보완에도 힘을 쏟을 것을 강조함.
- 매년 6천 개의 건물에 대한 안전 점검을 강행하고 상하수도 시설 확충, 도로 인프라 확충, 가로등 설치, 교육 및 보건센터 확충 등을 통해 슬럼 지역 개발에 힘을 쏟을 것을 공약함.

29) 한국의 1만 명당 의료진 수는 21.4명이지만 케냐의 경우 2명으로 의료시설 및 의료진 부족 상황이 심각함.

30) 공중의료보험제도(NHIF)에는 현재 약 650만 명이 가입되어 있음. 보험제도에도 불구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경우 개인이 내야하는 부담금이 51%에 달하여 의료서비스 비용이 여전히 큰 부담으로 작용함.

■ [균형발전] 지방의 경제력 강화를 위해 산업단지를 건설하고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제도적 차원의 개선을 계획하고 있으나 예산 분배에 대해서는 보다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음.³¹⁾

- One-County-One-Product 프로그램을 통해 각 지방마다 경쟁력이 높은 핵심 제품을 선정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할 뿐만 아니라 연계성이 높은 지역 간 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하여 지방의 경제성장을 도모하겠다고 발표함.
- 지방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공무원교육을 강화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갈등 해소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보강하겠다고 함.
- 다만 지방정부에 배정하기로 한 예산은 일방적으로 배분하기보다 국가적 우선순위에 맞춰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조건부 보조금 형식으로 지급하여 자치주에서 독립적으로 예산을 마련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함.³²⁾

■ [안보] 동아프리카 지역의 안보위협에 대해 케냐타는 적극적인 개입 입장을 유지하고 있음.³³⁾

- 케냐의 주도권을 확고히 하려는 케냐타는 지역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아프리카 연합의 소말리아평화유지군(AMISOM) 병력을 추가적으로 파견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음.
- 테러방지경찰부대(Anti-Terrorism Police Unit)와 국경 경비를 보완하기 위해 특수 차량 및 장비를 추가적으로 구입하고 훈련을 강화하겠다고 함.

5. 전망 및 시사점

가. 전망

■ 2차례의 대선과정을 통해 출범한 케냐타 정부(2기)는 필연적으로 다양한 과제를 안고 있으나 향후 국민통합행보 및 야당과의 새로운 관계설정을 통해서 정부의 기능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함.

- 현재 최대 정적(政敵)인 오당가를 중심으로 별도의 정부구성과 국제사회의 개입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존재하나 현재로서는 국제사회의 개입 명분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으로 판단됨.

■ 또한 케냐 경제도 정치적 긴장이 완화되면서 점진적인 회복 기초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 오래 지속된 대통령 선거과정의 갈등이 2018년 점진적인 해소국면으로 접어들면서 투자가 회복되고 관광 산업과

31) 1963년에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사실상 단일정당체제가 유지되면서 중앙정부의 집권 부족 중심으로 권력이 집중되어 정치·경제적 이해관계를 둘러싼 부족 간 갈등이 심화되었고, 2010년에는 중앙정부의 권력을 분산하고자 헌법을 개정함.

32) 헌법에서는 정부 예산의 최소 15%를 지방정부에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33) 케냐는 소말리아 남부에서 활동하는 테러 단체 알샤바브(Al-Shabaab)에 대항하고 소말리아 평화유지를 위해 조직된 AMISOM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2011년에 합류한 이후 웨스트게이트 쇼핑몰 테러, 나이로비 버스 테러, 기콕바 시장 테러, 만데라 버스 테러, 가리사 대학 테러 등 알샤바브 소행의 테러 사건이 여러 차례 발생하여 25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함.

같이 특히 침체되었던 산업이 정상궤도에 올라설 전망

- 또 다른 성장 동력으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잠재 수요의 회복세, 공공철도 프로젝트의 확대효과 및 케냐타 정부의 민심수습책으로 인한 지역 통합효과가 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 다만 강수량에 의존하는 농업의 구조적인 문제, 금리인상 위험, 일반 상업은행의 비정상적인 고이율문제, 탄자니아와의 무역 분쟁 등 다양한 장애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성장 폭은 점진적인 수준에 머무를 전망이다.

표 11. 케냐 경제의 향후 전망

	2018	2019	2020	2021	2022
실질 GDP 성장률(%)	5.3	5.8	5.5	5.8	5.9
소비자 물가(%)	6.5	6.2	6.5	6.9	6.5
재정수지(GDP 대비 %)	-7.2	-5.5	-4.6	-4.3	-3.8
경상수지(GDP 대비 %)	-5.6	-5.2	-4.5	-3.9	-3.4
환율(케냐실링:미국달러)	107.5	111.5	115.5	120.0	125.0

자료: EIU Country Report: Kenya(검색일: 2018. 1. 4).

■ 그동안 케냐타 정부가 추진해왔던 개방적인 통상정책의 방향은 향후에도 지속될 전망이나 케냐타 정부 1기때부터 지속된 탄자니아와의 갈등이 EPA 협상 및 동아프리카 역내통합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 2015년 탄자니아 현 대통령인 마구풀리가 취임한 이후 케냐와 탄자니아의 관계는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음.
- 유럽과의 통상협정 측면에서도 탄자니아는 저개발국을 대상으로 관세 및 수출입 할당량을 면제받는 현재의 EBA (Everything But Arms)를 유지하기 위해 EPA에 부정적이며 그 외 내륙국 유전의 해상 수출항 경쟁에서도 케냐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 지속된 갈등으로 케냐와 탄자니아 간 보복 수입금지 조치가 반복되면서 2017년 상반기 케냐의 대(對)탄자니아 수출 규모는 2016년 상반기 대비 약 60% 감소함.

나. 시사점

■ 케냐타 2기 정부의 출범에 따라 기존에 추진되어왔던 대규모 인프라 개발 중심의 경제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도로, 항만, 통신 등 관련 산업에 대한 우리 기업의 진출은 여전히 유효한 상황임.

- 케냐타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 및 경제성장을 위해 인프라 개발을 강조해왔음.
- 이번 임기에 계획 혹은 완료 예정인 인프라 개발 사업은 라무 항구 개발, LAPPSET 운송 회랑 개발, 몸바사에서 나이로비에 이르는 고속도로 건설, SGR 2단계 철도 건설, 콘자과학기술도시(Konza Techno City) 개발, 댐 건설 등이 있음.

- 전술한 바와 같이 케냐타 정부의 재정적자 문제가 심화되고 있어 인프라 개발의 민관협력 사업 확대가 예상되므로, 중국과 같이 정부 차원의 대규모 경제지원이 어려운 우리나라의 경우 민관협력 형태의 진출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의 경우 케냐에 이미 공여한 차관 규모가 65억 달러를 능가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승인 금액이 1.5억 달러 정도임.³⁴⁾
- 특히 대규모 인프라 개발뿐만 아니라 도시 주택 공급, 정보통신기술의 농촌지역 보급, 산업단지 건설 등 소규모 사회기반시설 개발 사업도 다수 계획되어 있어 지속적인 관심이 촉구됨.
- 케냐는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 수주, 현지 법인 설립 등의 적극적인 측면 외에도 동아프리카 물류허브 국가로 수출시장 측면의 관심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케냐의 인구구조와 경제성장 기초를 고려했을 때 케냐의 소비시장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며, 케냐의 몸바사항을 거쳐 동아프리카 1억 6천만 소비시장에 접근할 수 있음.
- 케냐는 역내 TFTA, 유럽과의 EPA 등 주요 통상협상에서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어, 수출중심의 우리나라와 장기적인 협력관계를 발전시킬 여지가 많은 상황임.
- 다만 지난 대선과 관련한 논란에서 보듯, 케냐의 경우 경제적 잠재력과 별개로 뿌리 깊은 정치적인 갈등과 사회적으로 만연한 부패문제 등과 같은 위험요인이 있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함. **KISP**

34) 중국은 2000~15년 기준으로 기 지급된 차관 금액을 의미하며 한국의 경우 2017년 11월까지 승인된 차관 금액을 의미함[China Africa Research Initiative Data(검색일: 2017. 12. 23); 대외경제협력기금(검색일: 2017. 12. 23)].

참고문헌

[영문자료]

- BMI. 2017a. “Kenya Freight Transport & Shipping Report 2018.” BMI Industry Report and Forecasts Series.
- _____. 2017b. “Tanzania Freight Transport & Shipping Report 2018.” BMI Industry Report and Forecasts Series.
- EIU Country Report: Kenya.*
- Elections Act. No. 24 of 2011. *National Council of Law.*
-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enya. 2007. *Kenya Vision 2030(The Popular Version).*
- Ipsos. 2017a. *SPEC Barometer: Mid-Year Survey.*
- _____. 2017b. *SPEC Barometer: Pre-Election Survey.*
- Jubilee. 2017. *Continuing Kenya’s Transformation Together.*
-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2014. *Basic Education Statistical Booklet.*
- Ministry of Industrialization and Enterprise Development. 2015. *Kenya’s Industrial Transformation Programme.*
- Ministry of Industry, Trade and Cooperatives. 2017. *Buy Kenya – Build Kenya Strategy.*
- NASA. 2017. *A Strong Nation.*
- Supreme Court of Kenya. 2017a. Presidential Petition No. 1 of 2017: Judgment. 2017. 09. 20.
- _____. 2017b. Presidential Petition No. 2 of 2017: Petition. 2017. 11. 06.
- _____. 2017c. Presidential Election Petition No. 4 of 2017: Petition. 2017. 11. 06.
- _____. 2017d. Petition No. 4 of 2017: Affidavit in support of the petition. 2017. 11.
- _____. 2017e. Petitions Nos. 2 and 4 of 2017: Judgment of the court. 2017. 12. 11.
- The Constitution of Kenya. 2010. *National Council of Law.*
- The Presidency & Ministry of Devolution and Planning. 2013. *Kenya Vision 2030 – Second Medium Term Plan.*
- Transparency International. 2006-2017.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 “Uhuru Kenyatta’s Hollow Victory.” *The Economist.* 2017. 11. 04.

[웹사이트]

- 대외경제협력기금. 국가별 지원실적 통계자료. <https://www.edcfkorea.go.kr/site/homepage/menu/viewMenu?menuid=004002004002003>.

- African Economic Outlook. <http://www.africaneconomicoutlook.org/en/statistics>. Public Finances and Monetary Indicators.
- Central Bank of Kenya. <https://www.centralbank.go.ke/>.
- China Africa Research Initiative. Data: Chinese loans to Africa. <http://www.sais-cari.org/data-chinese-loans-and-aid-to-africa/>.
- Dahir, Abdi Latif and Lily Kuo. 2017. 8. 9. "Kenya's opposition says the election was hacked in the president's favor." Quartz. <https://qz.com/1049814/elections-in-kenya-2017-raila-odinga-says-results-were-hacked-for-president-uhuru-kenyatta/>.
- Elkins, Caroline. 2008. 1. 6. "What's Tearing Kenya Apart? History, for One Thing." Washington Post <http://www.washingtonpost.com/wp-dyn/content/article/2008/01/04/AR2008010404300.html>.
- "Kenya election official Roselyn Akombe flees to US." 2017. 10. 18. BBC. <http://www.bbc.com/news/world-africa-41660880>.
- Kenya Institute for Public Policy Research and Analysis. 2017. "The transformative benefits of the Standard Gauge Railway." <http://kippra.or.ke/the-transformative-benefits-of-the-standard-gauge-railway/>.
- KTN News Kenya. 2017. 10. 18. "Wafula Chebukati: I cannot guarantee free, fair and credible election." <https://www.youtube.com/watch?v=avnJ8py-uEg>.
- Mateche, Damaris E. 2011. 1. 18. "The Cycle of Drought in Kenya a Looming Humanitarian Crisis." Institute for Security Studies. <https://issafrica.org/iss-today/the-cycle-of-drought-in-kenya-a-looming-humanitarian-crisis>.
- Njini, Felix. 2017. 07. 18. "The Charts That Show Kenya's Economy After Four Years of Jubilee." Bloomberg.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17-07-18/the-charts-that-show-kenya-s-economy-economy-after-four-years-of-jubilee>.
- Nyambura, Zipporah. 2017. 10. 26. "In Kenya, politics split on ethnic divide." Deutsche Welle. <http://www.dw.com/en/in-kenya-politics-split-on-ethnic-divide/a-37442394>.
- Oxford Economics Global Data. <https://services.oxfordeconomics.com/data/>.
- Stratfor. 2017. 8. 4. "Can Kenya Stanch the Bloodshed Before It Begins?" <https://worldview.stratfor.com/article/can-kenya-stanch-bloodshed-it-begins>.
- UNDESA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17. <https://esa.un.org/unpd/wpp/DataQuery/>.
- World Bank Database. <http://databank.worldbank.org>.